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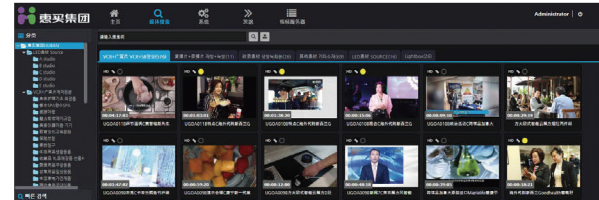
프라운호퍼
프랑스 오픈 테니스 선수권 프로그램의 지상파 및 위성방송망을
통한 MPEG-H 오디오 수신 성공



프라운호퍼 IIS에서 최초로 개발된
MPEG-H TV 오디오 시스템이 프랑
스 오픈 테니스 선수권 대회 라이브
UHD TV 방송 채널을 위성과 DVB-T2

를 통해 성공적으로 전송하여 유럽에서의 중요한 시험을 통과했다. 프랑스 텔레비زيون(France Télévisions)과 프랑스 테니스 연맹이 유텔샷(Eutelsat)의 자회사인 TDF와 FRANSAT와 협력하여 프랑스 오픈 테니스 선수권 대회가 열리는 동안 DVB-T2와 위성을 통한 MPEG-H 오디오 몰입형 사운드의 전송 및 수신을 성공적으로 테스트하였다. MPEG-H 스트리밍은 지난 5월 27일부터 필립 샤틀리에 코트의 정규 라이브 UHD 방송에 포함되었으며 대회가 끝나는 6월 10일까지 생중계되었다. 몰입형 사운드는 지난 10년간 프랑스 텔레비زيون에서 제작되었으나, 올해 Schoeps 마이크 셋업은 코트 어디에서라도 프랑스 텔레비زيون이 공이 맞는 사운드를 더욱 더 정밀하게 제공할 수 있게 하였다. 또한, 메인 코트에서는 ORTF-3D Schoeps 마이크를 사용하여 3차원적 주변음을 제작할 수 있었다. 작년에 시행된 첫 객체 기반 오디오 라이브 프로덕션 시범운영 이후 프랑스 텔레비زيون은 처음으로 MPEG-H TV 오디오 시스템을 초고화질 비디오와 연결시켰다. MPEG-H는 사용자가 영어 또는 불어로 된 해설 중계방송을 선택하거나, 혹은 필립 샤틀리에 코트의 온전한 현장 분위기를 즐길 수 있도록 해설이 없는 버전을 선택할 수 있는 등의 넓은 시청자 선택권을 제공했다. 또한 중계 도중에도 MPEG-H의 고급 설정에서 대화 오디오 볼륨만 올린다거나 오디오의 위치를 바꾸는 등의 맞춤형 몰입형 믹스를 세팅할 수 있다. MPEG-H 몰입형 오디오 콘텐츠의 라이브 프로덕션은 융어 오디오(Jünger Audio)가 제공하는 멀티채널 모니터링 및 제작툴(Multichannel Monitoring and Authoring, MMA)을 사용함으로써 가능해졌다. 더불어, 여러 TV 오디오 소스(Audio Objects) 중 시청자가 선택한 오디오 소스를 원하는 만큼 소리를 키우거나 심지어 꺼버릴 수 있는 맞춤형 오디오 믹스가 MPEG-H 오디오 메타데이터를 통해 가능하게 되었다. 또한 실시간 방송을 위하여 비디오 압축 솔루션 제공 업체인 아템(Atem)은 MPEG-H TV 오디오 시스템에 대한 지원을 TITAN 방송 UHD 인코더에 성공적으로 통합시켰다. 아템사의 솔루션은 모든 DVB 시장에서 MPEG-H 오디오의 몰입형 및 맞춤형 특성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유럽에서의 첫 MPEG-H TV 오디오 엔드 투 엔드(end-to-end) 시험 방송이 진행되는 동안 5.1 서라운드 스피커와 추가된 네 개의 천정 쪽 스피커 채널을 통해 전송된 테니스 코트 관중들의 환호와 박수와 같은 액션은 프랑스 텔레비زيون 방송 센터의 MPEG-H 오디오를 통해 경험할 수 있으며, 이는 안드로이드 셋탑박스(STB)와 UHD TV 세트와 함께 몰입형 사운드바의 프라운호퍼 참조 디자인을 사용하고 있다. MPEG-H TV 오디오 시스템은 프랑스 방송 콘텐츠 모니터링 기관인 Conseil supérieur de l'audiovisuel(CSA)가 디지털 지상파 텔레비전(digital terrestrial television, DTT) 플랫폼의 다음 변경을 위해 고려 중인 차세대 오디오(Next Generation Audio, NGA) 기술 중 하나이다. 문의: 프라운호퍼 IIS www.iis.fraunhofer.de/amm

(주)제머나이소프트
중국 최대 비디오쇼핑 업체 후이마이 그룹과
에어리얼(Ariel) 기술 CMS 구축 계약 체결



디지털 미디어 관리 플랫폼 전문 기업인 제머나이소프트(대표 강진욱)가 중국 최대 비디오쇼핑(홍쇼핑)서비스 플랫폼 기업인 베이징 후이마이 온라인 네트워크 과학 기술 유한회사(이하 후이마이 그룹, 대표 두웨이양)에 콘텐츠 관리 시스템(Contents Management System: CMS)을 구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중국 후이마이 그룹은 TV, 네트워크, 휴대전화, 유선전화 등 다양한 플랫폼으로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비디오 기반 판매 형식을 개발해 중국 내 비디오쇼핑 업계를 선도하고 있다. 후이마이 그룹은 최근 급증하는 콘텐츠 수요에 빠르고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영상 제작 시스템과 아카이브 환경 개선이 필요했다. 그러나 기존 보유하고 있던 영상관리시스템은 복잡하고 효율적으로 연동되지 않아 불편함이 있었다. 이에 따라 각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연결해 소재 통합 관리, 업무 자동화, 작업 효율 향상이 가능한 고도화된 미디어 관리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제머나이소프트의 솔루션을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계약에 따라 제머나이소프트의 '에어리얼(Ariel)'을 기반으로 후이마이 그룹 비디오 쇼핑 채널의 제작 과정에서 사용하는 영상을 보관, 검색, 재사용할 수 있는 통합 미디어 관리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또한 2018년 말 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면 후이마이 그룹 6개 채널의 모든 제작 과정에 제머나이소프트의 에어리얼이 적용돼 더 신속하고 편리하게 영상을 제작할 수 있게 된다. 후이마이 그룹 두웨이양 회장은 “제머나이소프트는 다수의 구축 사례를 통해 성숙한 기술력과 최고 수준의 서비스 능력을 입증해왔다. 이러한 풍부한 구축 경험을 토대로 후이마이 그룹에 꼭 필요한 시스템 통합과 자동화를 실현함으로써 업무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제머나이소프트의 강진욱 대표는 “이번 사업은 단품 솔루션 공급이 아니라 국내 기술로 개발한 솔루션을 기반으로 중국 대형 방송국의 전체 제작 시스템을 개선하는 의미 있는 사례이며, 중국 업체의 CMS를 우리 제품으로 교체함으로써 자사 기술력을 중국 시장에서도 인정받은 쾌거라 할 수 있다”라고 의미를 설명했다. 이어 “향후 당사는 이번 계약을 발판으로 홍콩, 태국 등지에 솔루션을 공급한 데 이어 중국, 동남아시아 등 해외 시장 확대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각오를 밝혔다.

문의: (주)제머나이소프트 www.gemiso.co.kr